"나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"

- 다문화 가정의 승호(가명)의 이야기 -

한국인 아빠와 베트남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승호(가명)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아직 한국말이 서툽니다. 승호를 임신했을 무렵 이혼한 엄마는 어린 승호를 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승호가 다섯 살이 될 때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엄마 역시 한국말이 서툴기는 마찬가지입니다.

승호 아빠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머니는 어린 승호를 키우기 위해 밤낮없이 재단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많은 시간을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한국 말과 글 모두 또래에 비해 부족한 아들이 주위의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입니다.

승호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.
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승호의 한국어 교육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됩니다.

후원문의 : ☎ 02-3396-1004